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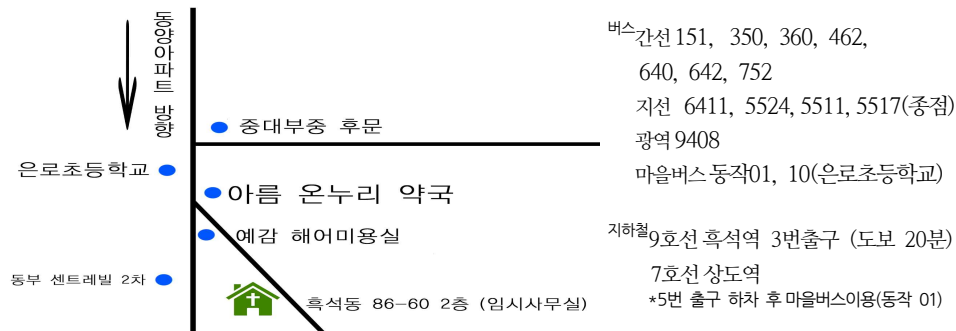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주일 오전 11:00	부서예배및모임 (주일)			
저녁기도회	월-목요일 저녁 8:0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1: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8:00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1:00
금 요 기도회	금요일 저녁 8:30	청 소 년 부	오후 1:00	마리아회	오후 1: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1:00
	*월삭새벽예배 6:00			에스더회	오후 1:00
셀 가족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파 송 선 교 사	강성규 (러시아)
			전임전도사 김 진 만	협 력 선 교 사	양병순 (카자흐스탄)
			전임전도사 권 인 혁		이금주 (M국)
			협력전도사 오 호 남	국 내 선 교 사	오인숙
장	로	유 신 웅 (집사장)			
		김 대 희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박 희 태		(2호) 세종 선한교회	
		조 윤 익		신원섭 목사	
		한 배 선			

선한교회 사무실 오시는 방법



06987 서울 동작구 서달로 110-10 2층 (흑석동 86-6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 5:16)

Walk By The Spirit

실 천 사 항 선교사의 삶 제자삼기(1인) 성경강론(1장)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암 송 구 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2:11)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오전 예배	오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기원	인도자	
찬양과 경배		29장 (통일찬송가 29장)	
교독문		교독문 26번(시편 50편)	
찬양과 경배		430장 (통일찬송가 456장)	
예배기도		유신웅 장로	
찬양		드림성가대	
말씀봉독		요한복음 6:1~15	
설교		한 끼의 특별 식사 (강성규 선교사)	
헌금드림		김미숙 김은정 김혜선	
환영및광고		인도자	
파송의노래		주를 위한 이곳에	
축도		임춘배 목사	
송영		드림성가대	
성도의교제		다함께	

수요일 예배	오후 8:00		예배장소 : 교회 사무실	인도자 : 임춘배 목사
	말씀봉독	죽음과 땅 분배 문제 (33장) 임춘배 목사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1. 전 교 인 수 련 회 장 소 : kobaco 연수원 (경기도 양평) 기 간 : 2017년 7월 30일(주일)~ 8월 1일(화) 강 사 : 원주회목사(샘물호스피스선교회 회장) 회 비 : 4인기준 33만원 3인기준 27만원 2인기준 17만원 1인기준 15만원 청년 단독 8만원 바울·에스더 단독 7만원 *교회버스를 이용하실 분들은 예배 후 중대부중 후문 주차장으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2. 매 일 성 경 강 론 매일 저녁 8시 성경 강론과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주보에 성경 강론을 위한 참고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사용과 참여를 바랍니다. (월~금 주5일)					
	3. 정 오 기 도 회 매일 점심(12시30분)에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전건축을 위한 기도문을 이용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체크하고 계시는 "기도문 읽기표"를 입당예배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 배 준 비 각 셀별로 돌아가면서 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예배준비 및 안내가 있고 청소 및 정리는 2시 30분 부터입니다. 오늘은 안양셀에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상도셀입니다. (정리 후에는 식당문을 잘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내 및 정 리					

2017년 성경강론 범위						
7/30	7/31	8/1	8/2	8/3	8/4	8/5
	31장	민수기 32장	민수기 33장	민수기 34장	민수기 35장	
※매일 저녁 기도회 : 월~목 저녁 8시(교회 사무실), 금요일 8시 30분(서울남부교회 4층)						
※매주 성경통독 내용과 암송구절은 주보를 참조.						

한주간의 기도제목	예배처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기쁨과 감사로 흘러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교회 건축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기를 담임목사님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지혜와 능력을 날로 더하시기를
--------------	---

가정예배

“네로의 법정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

찬송 : ‘전능왕 오셔서’ 10장(통 34)

본문 : 디모데후서 4장 16~18절

말씀 : 최고의 전도자 바울이 자신의 사형 언도를 앞두고 네로의 법정에서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선포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모범이 됩니다. 바울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네로황제의 법정에서 처음 심문을 받을 당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아무도 그를 위해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어서 곧 사형수가 될 사람의 입장에서 변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침묵은 악의가 아니었고 당시 로마의 폭압적 정치로 인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직 주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17절을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주께서 곁에 서서 힘을 주심으로 로마황제 네로의 법정에서 말씀을 온전히 전파했습니다. 네로 황제와 당시 제국의 지도자들은 바울이 그들 앞에 끌려 나오지 않았다면 결코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기회를 이용해 복음을 온전히 전파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시며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현재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후에 다시 오신다는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자는 네로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건짐은 반드시 육신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8절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천국소망 안에서 즐거워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디모데뿐 아니라 오늘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자 바울의 삶은 본이 되어 할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피의 복음에 부리를 내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 닿는대로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출처 :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은혜의 말씀

제목	한 끼의 특별 식사 (요 6:1-15)
서론	한 끼의 특별식사 비용으로 40억3천만원? 성경에도 특별한 식사가 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본론	1.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이스라엘의 갈릴리 동쪽의 한적한 곳 벳새대에서 일어났다. 2.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어서 모여들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도시락을 준비하지 못한 채로 참석하여 특별한 방법의 저녁 식사가 필요했다. 3.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도시락 1개(보리 빵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5천명 이상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 .
결론	무엇을 의미하는가? 1) 사람들의 필요에 반응하라. 2) 필요의 해결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3)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배기도	유신웅 장로	조운익 장로
헌금위원	황수연 강병국 강보선	황수연 강병국 강보선
안내	안양셀	상도셀

매일 성경 강독		미디안 족속 진멸		날짜 : 7월 31	
찬양		생명줄 던지어라 (찬송가 500장/통일 찬송가 258장)			
통독		민수기 31장			
본문 내용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원수인 미디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하십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모두 1만 2,000명의 군사를 선발합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다섯 왕과 브올의 아들 발람을 죽이고 미디안 족속을 진멸합니다. 모세는 브올의 사건에 연루된 여자들을 살려 둔 것에 대해 분노합니다. 그래서 남자 아이와 남자와 동침한 여자를 모두 죽이게 합니다.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간 정결 의식을 거쳐야 하고, 전쟁에서 쓴 물건은 불이나 물로 정결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획득한 물건을 군인과 백성에게 공평하게 나누도록 하십니다. 싸움에 나갔던 군인은 자신의 뒤통에서 50분의 1을 하나님께 거제로 드립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몫입니다. 또 백성은 자신의 뒤통에서 50분의 1을 레위인에게 줍니다.			
생각해보기					
1		미디안 정복전쟁 (1) 31-36장까지는 정복과 그 이후의 땅 분배에 관련된 이야기 (2)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죄에 빠지게 한 미디안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심 (3) 이스라엘 지파별로 일천명씩 뽑아 싸움에 보냄 (4) 발람의 꾀를 좇아 이스라엘을 범죄케 했기에 정결한 여자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죽임 (5) 참전한 군사들과 전리품의 정결예식을 행하고 분배원칙에 따라 전리품을 분배하고 감사예물 드림 (6) 최악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소멸하고 생명을 보호해주는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자.			
핵심 단어		미디안에게 갇으라 - '원수를 갇으라'는 명령은 레 19:18의 '원수를 갇지 말라'는 말씀과 상반되는 것 같다. 그러나 여기서의 원수란 개인적 차원에서의 원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그 백성을 욕되게 한 공동체적 차원의 원수이기 때문에 두 명령에 모순이 없다. 따라서 본 명령은 결코 감정적 보복 명령이 아니라, 악인에 대한 합당한 공의의 시행 명령인 것이다. 사실 성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해 존재하는 신분이란 점에서 그분의 영광과 권위를 훼손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대처함이 마땅하다. 한편 미디안을 전멸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단순히 이스라엘을 유혹했다는 측면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육간의 부패로부터 이스라엘을 거룩히 보존하시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셀 모임 나눔지		“절망 중에 부르는 소망의 노래”
찬양과 기도	목마른 사슴 /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통 404장)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유명한 부흥사 드와이트 무디(Dwight L. Moody) 목사의 찬송 인도자였던 아이라 생키(Ira D. Sankey)는 자신을 알아보는 한 신사와 마주쳤습니다. “생키 선생님, 혹시 남북전쟁 당시 북군으로 참전한 일이 있습니까?” 생키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신사는 당시 남군으로 참전했었고, 북군과 대치 중이던 한밤중 사정거리 안에 있던 북군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었는데, 조준을 마치고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 순간 찬송 소리에 방아쇠를 멈추었다고 말했습니다. 찬송을 불렀던 사람은 바로 자신이 쏘려고 했던 북군 생키였던 것입니다. 생키를 쏘려 했던 신사는 생키가 부른 찬송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를 들으며, 그 찬송을 자주 부른 어머니가 생각나 도저히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죽을 뻔한 순간을 넘겼음을 깨달은 생키는 너무나도 감격한 나머지 신사를 끌어안았고, 당시 자신이 전쟁의 공포와 절망 가운데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절망과 어둠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히려 찬송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찬송의 힘으로 일어난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말씀 나누기	민수기 33:38~56	
묵상포인트	낙심과 불안은 우리의 마음과 영적 감각을 둔하게 합니다. 낙심과 불안의 때에 믿음을 저버리느냐, 아니면 믿음이 도약하느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에게서, 우리는 고통의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갈망해야 하는지 교훈을 얻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낙심을 소망으로,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는 비결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자신을 향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낙심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입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시편 기자의 속사람은 어떤 상태인가요? 시편 기자는 그러한 자기 속사람을 향해 무엇이라고 선포하나요?	
적용하기	낙심될 때 어떻게 하나요? 시편 기자처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스스로에게 자주 선포해 보세요.	
함께 기도하기	목마른 사슴 같은 갈급함과 순전한 사랑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게 하소서. 낙심과 불안으로 위축될 때, 눈을 들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매일 성경 강독		레위인의 거처	날짜 : 8월 4일
찬양 통독	꽃 예수 (찬송가 89장/통일 찬송가 89장)		
본문 내용	민수기 35장 하나님은 레위인이 거할 곳을 마련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에게 42개의 성읍과 그에 딸린 들을 줘야 합니다. 또한 실수로 살인한 자가 피신할 6개의 도피성을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각 세 성읍씩 세워야 합니다.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에 피신해도 소용없고 죽음으로 죽음을 갚아야 합니다. 도피성으로 피신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은 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피를 흘려 땅을 더럽힌 죄는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기			
1	레위인의 성읍들 (1) 다른 지파와 달리 기업이 주어지지 않은 레위 지파에게 각종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들과 성읍을 각 지파들이 할애해 주도록 지시함 (2) 이렇게 하여 얻은 레위 지파의 성읍은 도피성을 포함하여 모두 48개, 가축을 위한 목초지는 그 성읍들로부터 사방 이천 규빗(약1km) (3) 목초지는 레위 지파의 영원한 기업이 되었으나(레25:34) 48개의 성읍 내에 있는 모든 가옥과 토지는 레위지파의 영원한 기업이 아님(거처에 필요한 가옥만을 각 지파로부터 제공받음) (4) 레위지파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구별하여 드렸으므로 그들의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었으나 이스라엘 내에서 전국으로 흩어져 살게 됨(창49:7) (5) 우리 역시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도피성의 구별 (1) 레위인들이 다른 지파들로부터 할당받은 48개의 성읍 가운데 요단 동편과 서편에서 각각 3개씩 모두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구별함(백성들이 거주하는 성읍들의 중심지에 위치해서 쉽게 피할수 있게 함) (2) 부지중에 살인한 자로 하여금 그리로 피하여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한 조치임 (3) 구원의 길은 쉽고 가까우나 반드시 그 길에 들어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인간의 구원의 유일한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핵심 단어	도피성(아리 미클라트) - 이것은 '여호와의 제단'과 더불어 이스라엘 사회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자들에게 피신처 역할을 감당했다. 곧 이 도피성은 살인자에 대한 처형 재고 조치로 세운 것이었다. 부지중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자는 자신의 결백을 재판을 통해 공개적으로 판단받기까지 일단 피해 있을 피신처가 필요했던 것이다. 도피성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우발적인 살인범을 개인의 복수로부터 보호하고, 결국 그 생명을 살려주는데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고엘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성격의 것이었다. 그러나 비록 살인범이 도피성으로 피신했다 할지라도, 그의 살인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는 죽음을 면할 길 없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르우벤지파 와 갓 지파		날짜 : 8월 1일	
찬양 통독		이 몸메 소만 무언가 (찬송가 488장/통일 찬송가 539장) 민수기 32장			
본문 내용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가축을 치기에 적합한 요단 동편 땅에 머물기를 요청합니다. 이에 대해 모세는 가데스바네아에서 열 명의 정탐꾼이 저지른 불순종과 그 결과를 상기시키며, 그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멸망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모세의 경고를 듣고 르우벤과 갓 지파는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들은 유아들과 가축을 위한 성읍을 만든 후에 요단 강을 건너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맹세합니다. 이에 모세는 그들의 요청을 수락합니다. 모세는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 요단강을 건너가 다른 지파들과 함께 싸워 약속의 땅을 정복한다면 요단강 동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동의하자 모세는 아모리 왕 시혼의 국토와 바산왕 옥의 국토를 분배해 줍니다.			
생각해보기					
1		요단 동편 (1) 르우벤과 갓 지파가 요단 동편 길르앗 땅을 그들의 분깃으로 달라고 청원함 (2) 자신들의 가축이 심히 많고 길르앗 지역은 비옥하여 훌륭한 목초지를 가지고 있어 그 땅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할 형제 지파들의 희생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유익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문제임 (3)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소망하지 않고 육신의 안목에 눈이 어두워 이미 정복한 땅에 정착하고자 하는 불 신앙적 안일한 자세를 보임 (4) 모세는 이 두 지파의 행위가 38년전 백성들의 불신앙적 태도를 계승한 것으로 간주하고 심히 분노하며 책망함 (5) 이에 르우벤과 갓 지파는 만약 그들에게 길르앗 땅을 그들의 분깃으로 준다면, 그들이 다른 형제 지파에 앞서서 가나안 정복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함 (6) 형제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포기하고 자신의 안일만을 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함			
핵심 단어		낙심케 하여서(테니우운 에트 레브) - 직역하면 '너는 마음을 기울게 한다'는 뜻이다. 본래 '낙심케 한다'란 말은 '거절하다', '금지하다', '반대하다' 등의 뜻인 '누'에서 유래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당하여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다는 뜻의 '테누아'도 이 어근 '누'에서 나온 말이다(14:34;욥 33:10). 이처럼 원어의 뜻으로 볼 때 두 지파의 행위는 단순히 이스라엘 전체를 낙심케 한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면 거부한 죄악이라는 의미도 있다. 따라서 모세는 이 행위가 가나안 10정탐꾼의 보고로 불평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심판받은 것처럼(14:1-10),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케 될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아론의 죽음과 땅 분배 원칙		날짜 : 8월 2일	
찬양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가 382장/통일 찬송가 432장)			
통독		민수기 33장			
본문 내용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에돔 국경 호르 산에 이르기까지의 노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다음 날인 1월 15일에 라암셋에서 출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시고, 애굽의 신들에게도 벌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40년에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땅 주민을 몰아내고 우상을 파괴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땅의 분배 원칙을 말씀해 주십니다.			
생각해보기					
1		출애굽 여정 회고 (1)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과 중요 사건들을 상세하게 기록함 (2)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정리하는 이유는 인간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를 후대에 기념으로 삼기 위함 (3) 애굽에서 모압 평지까지는 10여일 걸리는 길이지만 백성들이 40여년을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한 불순종과 불신앙의 결과였음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			
2		가나안 정복 명령 (1) 가나안 거민을 다 멸하고 그들의 우상과 산당을 다 파괴하라. (2) 가나안 땅을 취하고 종족을 따라 제비 뽑아 나누라. (3) 만일 그 땅 거민을 몰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가 가시가 되어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고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4) 성도들은 자신의 삶속에서 죄의 유혹을 받을 만한 여지가 있는 것은 무엇든 모두 제거해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핵심 단어		다 몰아내고 - 여기서 '몰아내고'(호라쉐템)란 '기존 소유주를 몰아내고 대신 점유하다', '추방하다', '파괴하다'는 뜻의 '야라쉬'에서 유래한 말로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철저히 분쇄하고 그 땅에서 완전히 축출한 다음 차지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사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시고자 하셨던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우상과 죄악에 찌든 무리들을 도무지 용납할 수 없었다. 즉 이스라엘이 수행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수탈을 목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 성결의 한 과정이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앞에서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갖고 원주민들을 철저히 몰아내어야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 일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함으로써(수 9:21), 그로 인해 훗날 수많은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55, 56절).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공평한 땅 분배		날짜 : 8월 3일	
찬양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310장/통일 찬송가 410장)			
통독		민수기 34장			
본문 내용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비 뽑아 기업으로 취할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또 앞으로 있을 기업 분배가 공평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각 지파마다 족장 한 사람을 미리 임명하십니다.			
생각해보기					
1		가나안 땅의 경계 (1) 백성들이 기업으로 나눠 가지게 될 가나안 땅의 경계 언급 (2) 남쪽으로 아라바만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신 광야 (3) 서쪽으로는 지중해, 북쪽으로는 지중해에서 호르산으 거쳐 하살에난에 이르는 산지 (4) 동쪽으로는 하살에난에서 사해에 이르는 요단강 (5) 가나안 땅의 경계는 남북으로 약 256km 동서로 약 80km의 작은 영토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친히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삶의 터전이다. (6)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하신 몫은 때로 몫시 작게 보일지라도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한 소유보다 더 넘치게 되는 것을 믿고(시37:16)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려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자.			
핵심 단어		갈렙(Caleb)은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데스에서 가나안 정탐 후 신앙적 보고를 함으로써,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13:1-16;14:30). 그러한 갈렙은 가나안 입성 직전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또한번 지명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사실 그는 원해 본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그나스 사람' 이였다. 즉 그는 출애굽시 함께 나온 잡족(출 12:38)중의 한 사람으로, 창36:11에 나오는 그나스의 후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그는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귀화함으로써 유다 지파에 흡수되었다. 이처럼 그는 귀화인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대사에 이어서 유다 지파를 대표할 만큼 지파내에서 신망이 두터웠던 것 같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배타적인 혈통 연합체가 아니라, 할례자이면 누구나 존귀한 일꾼이 될 수 있었던 신앙 공동체였음을 깨닫게 된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